

2011.12.26 미래정책연구실

□ 2012년 식품 인플레이션 완화 예상

1. Wallstreet journal(2011.12.19) 주요 내용

- 2012년 세계 식품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완화될 것이라고 미국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밝힘.
 - 금년 초, 전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, 비용 상승에 부담을 느낀 식품 기업들은 일제히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비용 부담을 덜어왔음.
 - 하지만 최근 유로존(유로 사용 17개국) 재정위기로 인해 소비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식품 기업들은 당분간 가격 인상책을 쓰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무디스 관계자는 밝힘.
 - ※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에 따르면, 세계 경제는 유로지역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2011년 3.8%에서 2012년 3.4%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.
- 네슬레(Nestle), 유니레버(Unilever), 다논(Danone) 등 다국적 식품 기업들은 기타 생산비 절감, 강한 교섭력(bargaining power) 등으로 원자재 값 인상에 따른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음.
 - 이들 업체가 지닌 브랜드의 매우 강력하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는 개별 상품군의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게 하고, 소매 유통 업체들과의 협상 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함.
 - 한편, 테스코(TESCO)와 까르푸(Carrefour)와 같은 대형 식품 소매 업체는 운영비 절감, 새로운 프로모션 도입, 가격 파워 등으로 식품 인플레이션에 적응할 수 있다고 무디스 관계자는 밝힘.
- 하지만 일각에서는 식품 업체들의 비용 절감 대책들이 한계에 다다를 경우, 수익 창출을 위해 식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냄.

※ 자료 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